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와 관련요인연구

Study on the Factors Relating and the Abuse of Immigrant Women

김민경*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Kim, Min Kyeong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find the general trends of individuals, marital relation, migrated-cultural variables and abuse,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marital relation, and migrated-cultural variables on the abuse. The subjects were 174 immigrant women. The data was analyzed with frequency,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by SPS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Physical abuse amongst immigrant wome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residence and income factors, psychological abuse was dependent on residence and native country, sexual abuse was dependent on education level, and total abuse was dependent on residence and native country. The level of abuse (range 1-4) was 2.07, psychological abuse was the highest with 2.23, physical abuse was next with 1.92, and sexual abuse was 1.78. All the abuse types were influenced by the husband's alcohol behavior, communication efficiency, marital conflict, and knowledge of Korean culture.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protect immigrant women who have been abused. So understanding, reasonable coping, prevention programs and counseling of abuse victims were provided to immigrant women.

Keywords : wife abuse, psychological abuse, physical abuse, sexual abuse, migrated-cultural variable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I. 서론

2000년 6,945건에 불과하던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국제결혼이 2008년 28,163건으로 나타났으며 도시 7.6%에 비해 농어촌지역은 13.8%이며 특정지역 농어촌의 경우 26.8%가 국제결혼을 하여 세 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부부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국제결혼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경향은 과거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의 경향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현상으로 최근

한국에 이주해온 여성들의 국적이 일본을 제외하고 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의 국가라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통계청, 2009).

이러한 원인에 근거하여 한국남성의 우월한 지위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암암리에 열악하고 취약한 위치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이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경제적 기대상실, 의사소통의 어려움, 언어와 문화적 차이,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사회적 지원체계부족, 사회의 편견과 차별,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재

* Corresponding author: Kim, Min Kyeong

Tel: 041-580-2329, Fax: 041-580-2924

E-mail: mkm35@nsu.ac.kr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박주희, 정진경, 2007; 최운선, 2007). 또한 한국인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과정없이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주초기부터 직면하는 사회문화적응상의 어려움은 더할 수 밖에 없다. 심각한 경우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의 문제(김오남, 2007; 양옥경, 김연수, 2007), 남편의 학대를 동반한 인권유린의 상황(광주광역시, 2009; 보건복지부, 2005; 양철호 외, 2003; Abraham, 2000)이 전개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은 결혼성립배경에서부터 문화적 차이와 함께 권력과 교환의 개념이 포함되어 시작되므로 결혼생활속에서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수반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부부관계 속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욕구좌절이 증가되어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갈등과 분노를 비현실적으로 다루게 되는 학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김오남, 2006). 따라서 부부갈등과 그에 따른 결과인 학대에 대한 분석은 바람직한 부부관계로 유도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일반 한국여성의 학대접근과는 달리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민여성간에 근본적인 문화차이가 학대 가능성을 유발시켜 다른 요인들과 함께 문화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학대발생 원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학대에 대한 연구는 실태조사가 몇몇 기관들에서 이루어졌으나 결혼이민여성 학대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직접적으로 가정폭력사례를 다뤄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를 언급하였고(양철호 외, 2003), 여러 실태조사들(광주여성개발센터, 2002; 광주여성의 전화, 2004; 보건복지부, 2005; 전라남도, 2006)에서는 주로 빈도파악으로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었으며, 정서적 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주여성을 부분적으로 언급하였고(최금해, 2005), 질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은 이주 후 가족생활에서 아내학대가 대부분 수반되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성지혜, 1996; 홍기혜, 2000; 윤형숙, 2004). 또한 부부갈등(김오남, 2006; 양선화, 2004; 윤형숙, 2004), 한국어능력(김상임, 2004), 문화차이(신경희, 2004; 심선진, 2004) 등이 언급되었다. 결혼이민여성의 학대를 파악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일반여성의 학대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음주(Brecklin, 2002), 아동기 폭력경험(Whitfield *et al.*, 2003), 부부간 의사소통(Holtzworth *et al.*, 1997), 성역할태도(김경신 외, 1999)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해보면 개인적 변수에 남편의 음주, 가정폭력노출경험을, 부부관계적 변수에 의사소통, 부부갈등을, 이주문화적 변수에 성역할태도, 언어능력, 문화차이 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체계론적 입장에서 원인론적 분석에 초점을 둔 실증적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아내 학대에 대한 해결접근과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학대에 접근하는데 있어 단편적인 가족의 특성이나 부부관계적 특성에 국한되어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고 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개입을 하는데 한계를 남겼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여성의 부부생활을 다중적으로 드러낸 결과로서 아내학대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결혼이민여성과 이들 부부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진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주여성의 학대발생에 대한 연구와 상황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민여성의 학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학대의 원인과 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적 특성과 이주문화적 특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개인적 특성과 경험 차원, 부부가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과 상호작용, 한국사회와 가족내에 존재하는 이주문화적 특성 등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먼저 개인적 변수로 남편의 음주와 가정폭력노출 경험, 부부관계적 변수로 결혼기간,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을, 이주문화적 변수로 성역할태도, 출신국가,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등이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민여성의 학대 상황을 보여주고 그에 수반된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내학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해 가족의 핵심체계인 부부관계내 갈등발생과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아내학대를 야기시키는 원인들을 근거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상담원, 건강가정사, 인권운동가에게 복지실천의 접근방향을 제공해 준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부장적 결혼에서 벗어나 양성평등한 공동체로서 부부갈등감소와 부부 모두 입과워먼트될 수 있도록 실천적 합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책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수립하는데도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연구문제 1> 결혼이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학대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포함한 개인적 변수, 부부관계적 변수, 이주문화적 변수 등 관련변수들이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1)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변수, 부부관계적 변수, 이주문화적 변수와 학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결혼이민여성의 관련변수들이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II. 선행연구고찰

1. 결혼이민여성의 학대

폭력과 인권유린의 문제는 사회적,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이슈이다(윤형숙, 2004).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학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에 온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한국염(2004)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문제 유형 중 가정폭력(상습적인 아내구타와 폭언),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의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가족에서 '소외된 아내', '인정받지 못한 며느리', '동서의 무시'와 같은 정서적 학대의 경험 등도 보고되고 있다(최금혜, 2005). 광주여성의 전화(2004)에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의 한국남성과 혼인한 이주여성실태조사(150명)에서는 36.4%가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폭력의 종류는 폭언이나 욕설 등 언어폭력이 가장 일반적이었고(58.8%) 뺨을 때리는 등의 물리적 폭력(17.6%)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2005)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폭력유형을 보면 '모욕적인 말'이 전체의 31.0%, 물건던짐이 23.7%, 때리겠다고 위협 18.4%, 세

게 밀기 13.9%, 손발로 구타 13.5%, 성행위 강요 14.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행위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는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여성가족부(2006)조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82.5%가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경험한 폭력적 행동은 폭언 또는 모욕적인 말(6.2%), 생활비 용돈주지 않음(5.7%), 송금못하게 함(2.8%), 신체적 폭력(2.3%)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적이 있는 남편의 폭력을 조사한 결과 중복응답으로 전체 31.8%의 부인들이 모욕적인 말 등 언어폭력이 심각함을 보여주었으며, 25.6%는 남편이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때리겠다고 위협을 받은 부인은 18.2%, 실제로 손발로 구타당한 부인은 13.0%, 세계 밀침을 당한 부인은 12.3%에 이르렀다. 또한 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당하게 성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 부인이 12.0%,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받은 부인이 5.5%로 나타났다(전라남도, 2006). 최근 광주광역시(2009)조사를 보면 폭력경험자(19.6%) 중 언어적 폭력(75.0%), 신체적 폭력(28.3%), 성적 폭력(9.4%), 무시와 시댁식구차별 등 기타 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이주여성들이 경험한 학대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경향정도는 위험수위에 있고 학대의 범주가 다양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결혼이민여성 본인이 생각하는 폭력의 이유로는 이해 부족(33.3%)이 가장 많고 경제적인 문제가 그 다음이었으나(25.5%) 술 마시고(15.7%)와 모르겠다(5.9%) 등 가정폭력이 특별한 이유없이 행해지고 있었다(광주여성의 전화, 2004).

2. 결혼이민여성의 학대관련 영향 요인

가정폭력상황의 결혼이민여성의 경험은 언어장벽, 좋은 직업에 대한 접근의 부족, 불확실한 법적 지위, 모국에서의 경험을 포함한 이민자로서 특별한 지위에 의해 악화되었으며 따라서 범 국가적 독특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혼이민여성의 가정폭력경험이 많이 나타났다(Hass *et al.*, 2000). 학대받은 결혼이민여성들은 그들 폭력적인 배우자의 손에서 '이민학대'의 형태에 직면한다(Dasgupta, 2000). 여기서는 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개인적 변수, 부부관계적 변수, 이주문화적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개인적 변수

개인적 변수는 부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음주, 가정폭력노출경험 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일반가족에서 나타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결혼이민여성의 학대관련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거주지역의 경우 도시보다 농촌가족의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특히 여성차별적 분위기, 남편의 주벽과 폭력문제 등을 경험하면서 농촌여성들이 결혼의 불안정성이 높게 보고되었다(양순미, 유영주, 2002; 최규련, 2000; 최규련, 2001). 아내의 교육수준은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학대가 교육수준과 무관하다는 연구들(감갑숙, 1991; 손정영, 1997)과 초졸 이하의 여성들이 심리적, 성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김경신 외, 1999)도 있다. 소득 또한 명확한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으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학대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McKenry *et al.*, 1995; Straus *et al.*, 1980).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의 학대경험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김오남, 2006).

Leonard와 Quigley(1999)에 의하면, 음주를 하는 남성 가해자들 중 대략 60-85%는 그들의 일상적인 음주 행동과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적 행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고 한다. 한편 Brecklin(2002)의 연구 결과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음주 여부는 가정폭력 범주 중에서 특히 신체적 폭력과 더 많은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가정폭력과 음주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자 배우자의 음주는 여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이 보편적 현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남편들도 알코올중독, 폭음하는 음주문화 등으로 아내와의 갈등경험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희, 2004; 양선화, 2004).

일반적으로 아동기의 직접적인 폭력 경험과 폭력에 노출된 경험들은 이후 성인기에 직면하는 가정폭력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을 연구한 실증적 연구들(Corvo & Carpenter, 2000; Whitfield *et al.*, 2003)은 아동기의 폭력 경험과 가정폭력과의 높은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남성 가해자의 아동기 폭력 경험과 이후 가정폭력 발생과의 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은 보다

빈번하게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Holtzworth *et al.*, 1997).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모의 폭력적 행동을 많이 관찰하거나 부모로부터 폭력/학대 받은 경험이 많은 아동들은 폭력적 행동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발달시킬 능력이 부족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배우자의 폭력사용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높다. Shin(1995)의 연구는 한인 이민 남자 즉,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아동기의 폭력경험이 이후 성인기의 가정폭력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결과 아동기 폭력 노출과 성인기의 폭력적 행동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부부관계적 변수

부부관계적 변수는 부부간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결혼기간, 의사소통, 부부갈등 등이 포함되었다. 결혼기간과 아내학대와 일관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손정영(1997)의 연구에서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아내학대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관련성이 무관한 결과들(김갑숙, 1991; 이영희, 1993)도 제시되었다. 의사소통은 아내학대와도 밀접한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비효율적 언어적 공격이 자주 신체적 학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인 부부사이에서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 아내학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Holtzworth *et al.*, 1997).

부부갈등과 학대는 기능주의와 갈등이론적 관점에서 조명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부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폭력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갈등은 인간 사회에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폭력은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갈등의 가족관계에서 본질적인 폭력은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Straus *et al.*, 1980). 부부폭력이 부부갈등 배경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내학대는 배우자간 갈등과 강하게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다(Hotaling & Sugarman, 1990). 또한 국가적인 가족폭력 조사에서도 갈등이 높은 수준의 부부가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여(Straus *et al.*, 1980; Straus & Gelles, 1986) 이들

결과들은 부부갈등과 아내학대간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과 아내학대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된다고 주장한 양선화(2004)는 가정폭력이 이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중 하나이며 국제결혼 가정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 장애나 알코올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 혹은 고부간 갈등이 많고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가정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신체적 폭력, 간접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사회적 고립 등이 해당된다고 하였다.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을 연구한 윤형숙(2004)은 가부장적 가족질서로서의 편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부부갈등을 느끼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제의 수단으로 폭력과 폭언 등이 행해졌다고 하였다. 김오남(2006)도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과 학대의 깊은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3) 이주문화적 변수

이주문화적 변수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직면하는 환경적 요인과 문화적 특성을 지닌 변수들로 출신국가, 성역할태도, 한국어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아내학대의 관계는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니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용하여 가정내에서 가부장의 지위와 권위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반면 여성의 역할에 순응하며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표면화된 부부갈등이 적어 아내학대의 피해를 적게 받거나 혹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인 대처를 하거나 학대보고를 적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김광일, 1992).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김경신 외(1999)의 연구에서 아내의 성역할태도는 심리적, 신체적 학대와는 관련이 없으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이거나 근대적인 집단의 여성들이 보통수준의 여성집단보다 성적 학대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과 아내학대에 있어서 김상임(2004)은 결혼이민여성을 상담한 결과 남편들이 낮은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인 삶에서 배려하지 않아 부부갈등을 느끼며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짐에 따라 남편은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며 또한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까지 행한다고 하였다(마디퀴드, 2005). 또한 다문화가족 아내구타의 원인은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장애는 기본이고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에 가족구성원들의 학대도 동반되고 있다(이금연, 2003)고 보고되었다. 즉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인 언어사용이 부족하고 매매혼에 가까운 결합으로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입장에서 결혼이민여성의 폭력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가별로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빈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중국 한족출신 이주여성이 다른 지역출신 이주여성보다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성행위 관련 폭력의 경험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높다. 반면에 베트남 출신여성들은 모든 형태의 부부폭력 경험률이 10%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손발로 구타당한 경우 일본, 몽골, 태국 순이며, 모욕적인 말에서는 태국, 일본, 몽골, 구소련, 세계 밀기는 일본, 태국, 구소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전라남도(2006)의 이주여성 실태조사에 의하면 출신국가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남편폭력은 베트남부인에서 낮게, 태국 부인이나 필리핀부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욕적인 말은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대부분 30% 이상의 부인들이 경험하고 있었으나 베트남부인은 그 비율이 21.1%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때리겠다는 위협이나 물건을 던지는 것, 세계 밀기 등도 베트남부인에서 낮게 나타났다으며 태국부인에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물건 던짐을 경험한 태국부인의 비율은 무려 41.9%에 달하였으며 18.5%의 필리핀부인은 실제 손발로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성과 관련된 폭력은 필리핀부인에서 높게, 기타 국가 부인에서 낮게 나타났는데 필리핀부인의 16.7%는 성행위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8.5%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여성가족부(2006)의 조사결과 출신국가별로는 필리핀 23.3%, 일본 19.2%, 베트남 16.8%, 중국 16.0% 순으로, 최근 광주광역시(2009)도 필리핀 26.3%, 중국 21.8%, 일본 20.2%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학대에 대한 각 조사에 따라 출신국가의 양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필리핀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학대, 인권유린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윤형숙, 2004).

문화차이에 따른 아내학대와의 관계를 보면 결혼이민 여성은 음식문화차이에서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 언어, 문화, 전통에서 오는 오해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는데 그들 남편은 일정기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나 부인의 빠른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한다고 하였다(신경희, 2004; 심선진, 2004). 문화차이로 인한 부부폭력은 이주 여성이 한국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경우 남편의 폭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양선화, 2004). Ang(1995)은 호주에 온 필리핀 여성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고통 받으며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자신의 지역사회와 더 큰 사회에서 문화적 스티그마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 친척, 친구와 확대가족원에게 소외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습득 전 신문, 라디오, TV 등 국내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주민으로서도 언어적인 장벽으로 관계망확장이 어려워 폭력발생예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문제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과제와 대안으로 문화, 복지, 인권, 법적, 제도적 측면, 여성 민간단체의 지원 측면에서 국제결혼 가정을 도와줘야 함을 강조하였다(이금연, 2003). 이상의 결과들은 결혼이민여성의 학대 발생에 개인적 범주에서 부부관계적 특성, 이주문화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들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결혼이민여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복지관과 상담기관 내에서 개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특성상 각 나라별로 한국어, 영어, 일어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자가 설문내용을 한 문항씩을 설명한 후 응답한 내용을 설문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대상은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민여성 1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조사지역을 대상자의 접근에 대한 한계로 인해 공무원과 각 기관의 사회복지사, 상담가, 한국어 강사의 도움으로 비확률표집에 해당되는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정된 지역과 해당지역에서의 표본

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조사기관은 중소도시 3개 곳 M시, Y시, N시 81명과 그 외 군단위 6개곳(Go군, K군, Gu군, B군, J군, H군) 93명이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응답이 없는 문항,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재구성하였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사회조사과목을 수강한 대학생 3-4학년 3명 등 총 4명이 결혼이민여성과의 개별면접을 하였으며 각 해당기관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와 한국어 강사 등에게 결혼이민여성과의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면접내용을 결혼이민여성에게 미리 제공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연구자와 면접자의 소개 등 제반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았다.

2. 측정도구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 5명을 대상으로 문항내용의 이해도와 적절성을 평가한 후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한국적 상황과 잘 맞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거나 제외하는 방법과 가족전공 교수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 α 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1) 학대

아내학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Straus et al(1996)가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TS2는 갈등이론에 기초하여 가정폭력을 측정하는 CTS1을 보완한 것으로 협상(6문항), 심리적 학대(8문항), 신체적 학대(12문항), 성적 학대(7문항), 상해(6문항) 등 다섯 영역(총 3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 이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김정란, 2002)에서 조사결과 예비조사에서는 아내학대 유형과 관련하는 세 가지 하위척도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총 27문항을 사용하여 아내학대 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별도의 요인으로 묶이거나 두 개 이상의 요인으로 동시에 묶이는 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들은 폭력의 기

준설정과 문항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데서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 보고 최종적으로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로 측정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이러한 문항들을 삭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지난 1년간 남편이 아내에게 행한 심리적 학대는 ‘남편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 행동이나 욕을 한 적이 있다’, ‘남편은 나의 약점을 잡아 괴롭히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등 6문항, 신체적 학대는 ‘남편은 나를 잡아 당기거나 밀친 적이 있다’, ‘남편은 나를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등 3문항, 성적 학대는 ‘남편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남편은 내가 싫어하는 체위의 성행위를 강요한 적이 있다’ 2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폭력경험 정도를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간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심리적 학대는 .875, 신체적 학대는 .914, 성적 학대는 .896, 학대 전체는 .919로 각각 나타났다.

2) 개인적 변수

①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

조사대상자인 결혼이민여성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거주지역, 교육수준, 월평균소득 등을 파악하였다.

② 남편의 음주의존도

남편의 음주는 김경빈 외(1991)가 제작한 한국형 알콜중독선별검사 12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해당사항에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게 한 후 ‘그렇다’에 1점, ‘아니다’에 0점을 주어 분석하였다. 총점이 2점 이하이면 정상음주, 3점이면 알코올의존, 4점 이상이면 알코올남용에 해당되며 알코올의존과 알코올남용은 알코올중독을 의미한다. 그리고 ‘술이 깨면서 진땀, 손떨림, 불안을 느끼거나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다’와 ‘술이 깨면서 공포나 몸떨림을 경험하거나 헛것을 보거나 헛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의 문항에 해당하면 다른 문항의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기준에 따라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950으로 나타났다.

③ 가정폭력노출경험

결혼이민여성들이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폭력은 The Parents-Child Conflict Tactics Scales(CTSPC; Straus *et al.*, 1996)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CTSPC는 성인기에 아동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회상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CTS수정판이며 ‘13세 아동이었을 때’ 또는 ‘부모와 함께 살았던 마지막 해’에 부모들로부터 받았던 학대/폭력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이 남편에 대한 정보를 알아와서 자신과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응답하였다. CTSPC는 신체적 폭력(physical assault), 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aggression), 비폭력적 훈육(nonviolent discipline) 등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950으로 나타났다.

3) 부부관계적 변수

① 결혼기간

결혼이민여성의 결혼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총개월수로 조사하였다.

②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서로 의미를 나누는 이해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Pearson, 1989). 의사소통 척도는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 (MCI)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자가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비밀스런 일을 배우자에게 먼저 털어 놓는다’, ‘의욕이 상실되었거나 우울할 때 배우자는 나를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준다’ 등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863으로 나타났다.

③ 부부갈등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을 부부가 가정생활 중에 배우자와의 사이에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한 긴장이라고 규정하였다. 부부갈등 척도는 80년대 이후 꾸준히 개발되어 왔으며 특히 외국에서보다는 국내에서 많이 개발되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이영실, 1989; 이창만, 1992; 김갑숙, 1991; 홍원표, 1993; 이경희, 1998; 조유리, 2000)에 의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부부갈등 척도가 개발되어 이들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그 결과 부

부갈등 하위영역을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고 이 하위영역에 포함되는 요소(문항)들은 기존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을 포함시켰다.

척도의 구성은 개인적 특성영역, 부부관계적 특성영역, 공동생활 특성영역, 제삼자 특성영역 등 각 영역별 3 문항씩으로 총 12문항이다. 개인 특성영역은 성격, 생활습관, 사고방식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부부관계 특성은 부부간의 성(性), 애정이나 관심, 의도나 부정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공동생활 특성영역은 금전관리/소비, 주거주택계획, 가족여가활동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제삼자 특성영역은 친인척(시가, 친정, 형제자매 등), 자녀양육, 사회활동(종교활동, 다른 모임 등)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방식은 현재 부부생활에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정도가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911로 나타났다.

4) 이주문화적 변수

①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 척도는 Mason과 Bumpass(1975)의 Sex Role Ideology 척도와 Osmond와 Martin(1975)의 Sex Role Orientation 척도를 기초로 하여 이선미(1995)가 작성한 척도를 중심으로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여성은 직장생활보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있다', '집안일에는 남성과 여성의 할 일이 따로 있다', '결혼한 여성은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결혼은 해야만 한다', '결혼 후 반드시 자녀 특히 아들이 있어야 한다' 등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결혼이민여성인 남편에 대한 정보를 알아와서 남편에 대한 부인의 지각을 측정한다. 즉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823으로 나타났다.

② 한국어능력

Ataca와 Berry(2002)의 언어능숙함 도구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능력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에 능숙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는 .864로 나타났다.

③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은 '한국문화(명절, 예절, 가족호칭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로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문화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기술통계의 빈도, 백분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인적, 부부관계적, 이주문화적 변수와 학대의 정도가 어떠한지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관련변수들에 따른 학대의 차이는 t 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을, 관련변수들이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방법을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결혼이민여성 17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이민여성의 연령은 30대가 47.7%(8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대가 31.6%(55명)를 차지하였고, 40대가 20.7%(36명)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졸이 51.1%(8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졸 34.5%(60명), 대학원졸이 9.8%(17명), 중졸이하 4.6%(8명)로 각각 나타났다. 출생국가별로는 필리핀출신 여성이 116명으로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일본출신 여성은 22.4%(39명)로 나타났으며, 기타 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등)는 10.9%(19명)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역에 주로 필리핀 여성들이 많이 이주한 이유로 연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결혼기간은 4년에서 7년 이하가 39.1%(6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년 이상은 22.4%(39명)를 나타내었으며, 2년 이하와 2년에서 4년이하가 32명씩 18.4%로 각각 나타났다. 가정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48.9%(85명)로 절반가까이 나타나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101만원에서 150만원이 32.2%(56명), 151만원에서 200만원이하가 10.3%(18명), 201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가 6.3%, 301만원 이상이 2.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2005)가 조사한 결과 도시와 농촌을 막

론하고 이민자의 60%의 월평균소득이 140만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경제상황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확대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확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신체적 확대에 거주지역과 소득이, 심리적 확대에 거주지역과 출신국가, 성적 확대에 교육수준, 확대 전체에 거주지역과 출신국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표 1>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신체적 확대는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결혼이민여성이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신체적 확대가 높게 나타났다. 도시보다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확대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는 우리나라 농촌가족의 문제들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차별적 분위기, 남편의 주벽과 폭력문제 등을 경험하면서 농촌여성들의 결혼의 불안정성이 높게 보고되었다(양순미, 유영주, 2002; 최규련, 2000; 최규련, 2001).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도 남편의 차별과 확대의 영향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생활

에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부부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 확대가능성이 더 높다(McKenry et al., 1995; Straus et al., 1980)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

심리적 확대는 거주지역과 출신국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결혼이민여성이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한 경우 출신국가가 기타국가인 경우 심리적 확대가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태국국가의 출신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불만도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전만길, 2005)와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국가별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성적 확대에는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졸이하인 집단의 경우 성적 확대가 높게 나타났다. 초졸 이하의 여성들이 성적 확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김경신 외, 1999)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높은 교육수준이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폭넓은 이해의 폭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부갈등에도 이러한 특성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대전체에는 거주기간과 출신국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결혼이민여성이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출신국가가 기타국가인 경우 확대 전체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3. 관련변수들이 확대에 미치는 영향력

1)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

이후 분석에서 사용될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4점 척도인 확대와 남편음주 의존도를 제외하고 모두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개인적 변수에서 남편의 음주는 10문항 중 2점 이하일 경우 정상음주로 보고 3점 이상일 경우 음주문제가 있다는 측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3.89는 결혼이민여성 남편들이 음주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들의 음주문제와 결혼이민여성과의 갈등소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선행연구들(광주여성의 전화, 2004; 신경희, 2004; 양선화, 2004)에서도 국제결혼한 부부의 비중 있는 문제영역으로 남편의 음주가 아내 확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편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3.62(1점-5점 범위)로 나

(표 1)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확대의 차이

종속	독립변수		N	평균	표준 편차	F(t)	Scheffe
신체적 확대	거주 지역	도시	81	1.73	.59	3.45*	
		농촌	93	2.06	.61		
	소득	100만원이하	85	2.28	.72	5.01**	
		101-150만원	56	1.92	.64		
		151-200만원	18	1.87	.71		
201만원이상		15	1.60	.62			
심리적 확대	거주 지역	도시	81	1.93	.63	2.96*	
		농촌	93	2.29	.54		
	출신 국가	일본	39	1.63	.61	3.21*	
		필리핀	116	2.09	.70		
기타		19	2.35	.67			
성 적 확대	교육 수준	중졸	8	2.38	.69	3.67*	
		고졸	60	1.97	.54		
		대졸이상	116	1.85	.63		
확대 전체	거주 지역	도시	81	1.79	.86	9.34**	
		농촌	93	2.14	.64		
	출신 국가	일본	39	1.69	.67	3.60*	
		필리핀	116	1.93	.70		
		기타	19	2.42	1.16		

*p<.05, **p<.01

타났으며 반면 결혼이민여성은 1.99로 남편과 비교해 볼 때 가정폭력 노출경험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에 있어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의 차이가 나타나 폭력의 사회화 측면에서 남편은 성인이 된 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더 내포한다고 하겠다.

의사소통효율성은 3.40(1점-5점 범위)으로 나타나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일본여성의 의사소통(3.32)이 본 연구결과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의 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이규삼, 1999; 전만길, 2005).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결혼이민여성은 부부간 의사소통을 하는데 기본적인 한국어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부부간 의사소통에 최소한의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

변수		평균	표준편차
개인적 변수	남편음주의존도	3.89	1.04
	남편가정폭력노출경험	3.62	.87
	아내가정폭력노출경험	1.99	.77
부부관계적 변수	결혼기간(개월)	61.57	36.71
	의사소통효율성	3.40	.84
	부부갈등	2.95	.76
이주문화적 변수	남편성역할태도	3.56	.80
	아내성역할태도	2.93	.71
	한국어능력	3.09	.75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2.98	.79
학대	심리적 학대	2.23	1.42
	신체적 학대	1.92	.96
	성적 학대	1.78	.89
	학대 전체	2.07	.78

부부갈등영역에서는 전체 부부갈등은 2.95(1점-5점 범위)로 나타났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영자, 장영애, 2002; 조유리, 2000)에서 동일한 5점 척도에서 2.0이하에 머무르고 있어 결혼이민여성의 부부갈등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질적으로 문화환경에 노출된 결혼이민여성은 한국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더 경험할 것으로 여겨진다.

성역할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인보다 비교적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의 진보적 성역할태도와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간 간격이 클 경우 갈등발생 가능성

이 높다고 하겠다. 결혼이민여성의 주된 문제의 호소가 한국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김상임, 2004; 양선화, 2004). 성역할태도는 아시아국가일지라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경우 진보적 성역할태도를 보인 경우가 많아 문화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어를 말하고, 쓰고, 듣고, 읽는 능력인 한국어능력(3.09)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척도를 이용한 보진복지부(2005)조사 결과(3.48)는 본 연구결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자의 인터뷰결과 결혼이민여성 한국어능력은 실제 부진하지만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언어적 어려움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을 만들고 부부간의 대화가 아예없는 경우에서부터 직접적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한글교육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광주여성의 전화, 2004)를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은 2.98로 3점에 가깝게 나타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차원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체류기간이 오래될수록, 한국어능력이 높을수록 한국문화 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다(최운선, 2007). 따라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비록 낮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주어진다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각 학대 중 심리적 학대가 가장 높은 2.23,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심리적 학대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대 전체의 평균 점수는 4점 척도에서 2.07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정란(2002)의 연구에서 4점 만점에 1.42를 나타낸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여러 연구(공미혜, 1997; 신성자, 1999; Follingstad & Dehart, 2000)에서 심리적 학대나 성적 학대 역시 신체적 학대 못지않은 발생률과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가 신체적 학대를 의미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심리적 학대에도 주목해야 함을 말해준다.

2) 관련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

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거주지역과 소득, 교육수준의 관계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의 교육수준($r=.286, p<.01$)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r=.214, p<.01$)도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한국어능력과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29, p<.01$)가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한국어 습득능력도 높아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기간이 많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높게 나타나($r=.363, p<.001$) 결혼생활을 통해 한국어소통시간에 비해 한국어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결혼기간은 의사소통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86, p<.01$)가 나타나 결혼기간이 많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결혼초기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으나 결혼기간이 지속될수록 점차 부부간 대화가 원활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은 의사소통($r=.246, p<.01$), 부부갈등($r=.366, p<.001$), 한국어능력($r=.255,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의사소통과 한국어능력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사소통 수단인 한국어능력이 높거나 부부간 의사소통능력이 친밀한 경우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도 같이 높을 것이다. 또한 부부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부부갈

등이 높을 경우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낮을 수 있으며 반면에 결혼이민여성의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경우 부부갈등이 발생소지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변수들간의 상관이 .5 이하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관련변수들이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VIF값과 허용치(tolerance)가 1에, 잔차(DW)는 2에 근접한 경우, 상관관계가 .5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각 학대별 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VIF값, 허용치(tolerance)는 .879-1.005로, 잔차(DW)는 1.902-1.958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들간에는 모든 변수들은 .5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여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에 거주지역, 남편음주의 정도, 남편가정폭력 노출경험, 결혼기간, 의사소통, 부부갈등, 한국어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25%를 설명하고 있다. 학대 전체와는 달리 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는 남편가정폭력 노출경험정도가 높을수록 학대

<표 3>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000												
2	.111	1.000											
3	.286**	.214*	1.000										
4	-.164*	.074	.101	1.000									
5	.188*	-.034	-.068	.177*	1.000								
6	.055	-.052	-.076	.058	.038	1.000							
7	.008	.006	.067	.122*	.062	.099	1.000						
8	.132	.149*	.067	-.184*	.083	.046	.286***	1.000					
9	-.109	-.038	-.083	.205**	.078	.028	-.158*	-.211*	1.000				
10	-.089	-.113	-.162*	-.118*	-.130	.043	-.033	-.072	.074	1.000			
11	.106**	.037	.126*	.014	.033	.066	-.083	.014	.085	.023	1.000		
12	.092	.006	.229**	.010	.075	.139	.363***	.189*	.230**	.056	.104	1.000	
13	.066	.132	.117*	.077	.167	.025	.208*	.246**	-.366**	-.121*	-.141*	.255**	1.000

* $p<.05$, ** $p<.01$, *** $p<.001$

1. 거주지역(도시=1, 농촌=0) 2. 소득 3. 교육수준 4. 남편의 음주 5. 남편가정폭력경험 6. 아내가정폭력경험 7. 결혼기간 8. 의사소통 9. 부부갈등 10. 남편성역할태도 11. 아내성역할태도 12. 한국어능력 13.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가 높게 나타났다. 즉, 아내학대는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남성의 학습된 반응의 일부로서 폭력을 관찰하거나 경험함으로써 권력과 통제 의 형태로 폭력을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Hotaling & Sugarman, 1986; Straus et al., 1980)에서도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아내학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신체적 학대는 더 높게 나타나 부부간 일치도가 낮고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학대는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지고 부부 모두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를 잘 알지 못하고 한국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을 때 부부적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학대상황에 봉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서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에 진입하지 못할 때 부정적 대처방법으로 아내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심리적 학대에 거주지역, 남편의 음주, 남편가정폭력 노출경험, 의사소통, 부부갈등, 한국어능력, 출신국가,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변량의 22%를 설명해 주고 있다. 출신국가가 심리적 학대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로 나타났다. 즉 일본과 필리핀 출신보다 기타 국가 출신의 여성이 더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국가출신의 여성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고 남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보다 자유롭지 못한 결과 서로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남편의 입장에서는 답답함과 인내 부족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심리적 학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성적 학대에 교육수준, 남편음주의존도, 남편의 가정폭력 노출경험, 의사소통, 부부갈등, 남편 성역할태도, 한국어능력, 출신국가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22%를 설명해 주고 있다. 다른 학대와 달리 성적 학대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는 교육수준, 남편 성역할태도로 나타났다. 먼저 이주여성의 교육수준 요인은 개인의 어떤 문제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문제 해결기술 및 사회적 기술, 대처하는 능력 및 통제력과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mamura, 1998; Lazarus & Folkman, 1984). 분석결과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학대가 높게 나타나 교육수준이 증가할 때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폭넓은 이해의 폭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대발생이 완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높은 교육수준은 아내학대에 직면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능력과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성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남성 우선적 조건과 상황에서 가부장적인 남편의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한국에 온 결혼이민여성에게 성적 학대를 경험케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부인의 성역할태도가 아내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

〈표 4〉 관련변수들이 학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학대 전체	
		B	β	B	β	B	β	B	β
개인적	거주지역#	-.38	-.25**	-.36	-.22**	-.12	-.09	-.18	-.29***
	소득	.17	.14	.17	.05	.25	.12	.14	.06
	교육수준	.14	.09	.11	.09	-.37	-.28**	.11	.05
	남편의 음주	.16	.21**	.26	.25**	.36	.36***	.23	.19*
	남편가정폭력노출경험	.17	.19*	.20	.19*	.21	.25***	.17	.17
	아내가정폭력노출경험	.17	.15	.14	.15	.15	.13	.15	.13
부부 관계적	결혼기간	-.22	-.21*	-.13	-.08	.15	.04	-.14	-.08
	의사소통	-.44	-.54*	-.25	-.28**	-.34	-.37**	-.46	-.20**
	부부갈등	.20	.25**	.39	.35***	.37	.38***	.69	.31***
이주 문화적	남편성역할태도	.15	.13	.18	.14	.24	.22*	.15	.07
	아내성역할태도	.13	.11	.17	.13	.12	.17	.13	.12
	한국어능력	-.22	-.25*	-.27	-.19*	-.21	-.20*	-.17	-.19*
	출신국가1#	.12	.09	.20	.16*	.21	.23*	.13	.16
	출신국가2#	-.10	-.09	-.14	-.14	-.14	-.14	-.11	-.10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22	-.22*	-.21	-.23**	-.14	-.100	-.25	-.19*
R ²		.25		.22		.22		.28	
F		5.66***		4.99***		4.90***		5.88***	

* $p < .05$, ** $p < .01$, *** $p < .001$

#dummy variable : 거주지역(도시=1, 농촌=0), 출신국가1(일본, 필리핀=0, 기타=1), 출신국가2(일본, 기타=0, 필리핀=1)

(김경신 외, 1999)와는 달리 결혼이민여성들의 전반적인 성역할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역할태도는 개인적 특성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기대, 사회적 기대와 맥락에서 내재된 결과로서 국제결혼한 남편의 가부장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아내학대에 당위성을 제공하는 근원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일본남성과 동남아 여성간 국제결혼에서도 부부간 성역할불일치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가부장적 제도와 동남아여성에 대한 차별 등과 혼재되어 부부관계의 어려움에 기여하는 것(Piper, 1997)으로 보고되었다.

학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관련변수들은 거주지역, 남편의 음주, 의사소통, 부부갈등, 한국어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등으로 그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28%로 나타났다. 남편의 음주가 높을수록 학대는 높게 나타났는데 과도한 음주는 부부간의 갈등원인으로 작용됨으로써 아내학대를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남편의 경우 아내학대원인을 음주 탓으로 돌려 그것을 합리화함으로써 학대 가능성이 높다(젤즈, 1998)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된 것처럼 의사소통은 부부관계를 의미하면서 관계향상과 불만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부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생활의 목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과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고 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다. 부부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갈등상황에서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아내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국어능력이 낮을수록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을 만들고 부부간의 대화가 아예 없는 경우에서부터 직접적인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결혼이민여성들의 부부갈등과 어려움이 언급되었다(강유진, 2002; 성지혜, 1996; 양철호 외,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Smith & Kaminskas, 1992). 따라서 언어차이를 극복하고 한국문화에 적응될수록 학대는 감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에게 전반적인 한국인의 의식주, 사고와 가치체계 등의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와 교육, 한국어능력을 키워주는 것 등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결혼이민여성의 모국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문화적 차원은 믿음, 관습, 전통, 삶의 양식을 포함한

결혼생활의 중요한 단면으로 작용한다. 결혼이민여성이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학대는 높게 나타났다. 아내학대 감소와 예방을 위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시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농촌에 거주한 경우 남편의 음주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지 않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낮을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아내학대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족의 전체 아내학대에 개인적 변수인 거주지역과 남편의 음주가, 부부관계적 변수인 의사소통과 부부갈등이, 이주문화적 변수인 한국어능력,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등이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부부갈등이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와 학대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 부부간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남편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도 성적 학대를 제외한 학대에 영향을 주고 있어 학대감소에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남편의 음주는 성에 대한 일방적 강요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상승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내학대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학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에 입각하여 개입방향이 수립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생활에서 내포하고 있는 학대에 관한 연구이다. 국제결혼가족의 아내학대의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측면이 아닌 보다 다측면의 접근이 유효하리라고 보고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 변수, 부부상호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부부관계적 변수, 한국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문화적 특성인 이주문화적 변수들에 따라 학대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지역의 분포가 다양하게 기관의 사회복지사, 상담원, 한글교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일원변량분

석(ANOVA),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발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학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는 결혼이민여성이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신체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학대는 결혼이민여성이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한 경우 출신국가가 기타국가인 경우 심리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학대에는 중졸 이하인 집단의 경우 성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학대 전체에는 결혼이민여성이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출신국가가 기타국가인 경우 학대 전체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관련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수에서 결혼이민여성 남편들이 음주에 문제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가정폭력 노출경험보다 결혼이민여성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적 변수에서 의사소통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은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주문화적 변수에서 성역할태도는 부인보다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를 말하고, 쓰고, 듣고, 읽는 능력인 한국어능력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3점에 가까운 2.98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학대 중 심리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각각 나타나 결혼이민여성이 심리적 학대에 더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전체의 평균 점수는 4점 척도에서 2.07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변수, 부부관계적 변수, 이주문화적 변수들이 학대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농촌에 거주한 경우, 남편의 음주정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효율적이지 않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학대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변수에서 거주지역은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에 중요한 영향으로 등장하였다. 여성가족부(2006) 조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달리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폭력경험이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 자체가 폭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석해 볼 때 도시에 비해 농촌의 특성은 가사노동과 농사일이라는 이중부담이 존재하여 역할과중을 경험하며 남성의 여성차별적 분위기의 잔재

등 남편의 차별이 부부갈등과 학대를 야기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농촌의 결혼이민여성 부부에게 친밀하고 바람직한 부부관계유지와 부부갈등해결책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특히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유도할 적극적 지원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학대 중 심리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통념상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학대만을 학대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나 정서적 상처를 담고 있는 심리적 학대에 더 많은 호소를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대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학대에 대한 개입시 결혼이민여성의 심리적 학대를 포함한 실천적 접근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이를 가하는 결혼이민여성 남편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 등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아내학대 세대전이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안영희, 1998; Hotaling & Sugarman, 1986; Stith *et al.*, 2000)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남편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많을수록 아내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폭력노출경험을 통해 개인이 폭력을 일종의 행동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기제에 의해 아내학대행동이 세대전이 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내학대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리라 본다. 폭력적 가정에서 성장한 남성의 경우 모델링과정을 거쳐 자신의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의 도구화를, 여성의 경우는 폭력에 대한 무기력을 학습하여 아내학대를 부부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학습된 반응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폭력 세대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노조절, 자기통제 프로그램 등 폭력예방과 개입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편의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아내학대 또한 심해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남편의 음주와 아내학대의 관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들(겔즈, 1998; 공미혜, 1997;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9; Mckenry *et al.*, 1995)의 입장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내학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지, 혹은 비의도적인 경우에 학대가 발생한다면 남편의 음주가 아내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 가중, 부부갈등 심화와 같은 또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아내학대 가해자 개입프로그램이나 아내

학대 관련상담을 실시할 경우, 심리치료 및 알코올 치료와 상담을 위해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아내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부간 의사소통은 학대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의사소통은 단순한 한국어 습득과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선 심리적, 경제적,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의 복합체이므로 부부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이 일치하고 상호호혜적일 때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고 친밀한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결혼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남편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결혼 부부에게 부부의 상호이해 증진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가부장적 의식의 완화와 양성평등실천프로그램과 배우자의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때 부부관계향상에 도달할 수 있으며 가족구성원간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가정생활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올바른 정착도 이루어질 것이다.

여섯째, 부부갈등이 학대의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대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즉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부부갈등이 높은 부부일수록 상대방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많으며 언쟁과 부부간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폭력을 수반한다고 하였다(김오남, 2006; Noller & Fitzpatrick, 1990). 특히 여성들은 결혼전 기대와 다른 한국생활과 남편에 대한 정보가 상이한 경우 부부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으며 이는 부부갈등이 학대의 원인이 됨과 동시에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갈등의 감소와 해결은 학대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학대와 가족해체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처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재 국제결혼한 남편을 대상으로 예비부부교육 프로그램과 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으며 부부를 대상으로도 각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혼기간별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 등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곱째, 남편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성적 학대는 높게 나타났다. 즉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는 성역

할 태도는 성적 학대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겠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을 성적인 부분에서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는 사고가 팽배한 결과라 하겠다. 남편들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오히려 아내에게 기대수준이 높아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성급하게 폭력으로까지 진전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하였다(광주광역시, 2009).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에게 부부간 합의된 상황에서 부부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덟째, 일본이나 필리핀을 제외한 출신국가 여성들의 심리적 학대와 성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이나 태국 등의 기타 국가의 언어가 일본어나 영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오남, 2006). 현재 통번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시작단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각 출신국가별 통번역인력양성과 함께 상담인력이 양성되어 부부문제해결과 가족복지지원에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아홉째, 한국어능력은 모든 학대에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한국어 습득은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에 적응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기도 하며 학대를 비롯한 기타 문제예방에도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언어장벽은 다양한 방식에서 부부관계, 가족, 주위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위해 집 단교육이나 다양한 방식의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농촌의 경우 교육장소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와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한국어 습득이 요원해진다. 한국어 습득을 동화적 차원의 교육으로만 보기 보다는 한국사회와 그들 모국사회의 통합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시각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열 번째,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성적 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에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부부간 의사소통시 요구되는 것에 대해 여성들이 민첩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여성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간동안 배우자와 가족의 여유와 기다림이 필요하겠고,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통해 한국사회로 동화된다기보다는 결혼이민여성 자신의 생존과 성장의 의미에서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아내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보

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가해자,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부부, 이주문화적 가치까지 모두 포함시켜 아내학대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생태체계적 접근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내학대는 한 두 요인에 의해 설명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대예방 교육 및 치료, 위기개입 등을 시행함에 있어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정책이 아닌 상호연계성을 띤 다차원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받은 결혼이민여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모를 포함한 가족단위의 보다 확대된 접근이 필요하다. 즉 가족원들의 변화없이 결혼이민여성의 삶 또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가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가족체계적 접근과 변화를 유도해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기초 실태조사 파악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모, 자녀를 포함한 연구대상의 확대와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남편의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외국인아내들의 외도, 언어적 폭력(모국어 욕설)과 비언어적 폭력(가출, 잠자리 거부 등)에 대한 불만제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광주광역시, 2009). 따라서 연구초점이 결혼이민여성 남편의 입장에 대한 관심도 부각되어 폭력의 희생자가 여성만이 아닌 가족 모든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질문지를 활용하여 인터뷰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와 한국어 강사들의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나 질문문항이 많은 부분과 다양한 내용의 질문 등으로 응답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구조화된 질문지에 충실하여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대답을 끌어내는데 제약이 따랐다.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개입될 필요가 있겠다.

주제어 : 아내학대,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이주문화적 변수, 국제결혼, 결혼이민여성

참 고 문 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겔즈. (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3rd)**. 이동원·김지선 옮김. 서울: 길안사.
- 공미혜. (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 아내구타. **가족학논집**, 9, 49-79.
- 광주광역시. (2009). 광주광역시 2008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광주여성의 전화. (2004). 광주·전남지역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광주가정폭력상담소.
- 김갑숙. (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13-239.
- 김경빈, 한광수, 이정국, 이민규, 김유광, 김철규. (1991). 한국형 알콜 중독 선별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연구(III). **신경정신의학**, 30(3), 569-581.
- 김광일. (1992).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집, 17-48.
- 김오남.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8, 33-75.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 김정란. (2002). 아내학대에 대한 부부 체계적 접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마드귀드, 엠. (2005). 국제결혼한 필리핀 여성들(한국).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포럼, 이주여성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 자료집, 98-101.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들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정영. (1997). 갈등대처유형(CTS2)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 -남편의 갈등대처유형 및 아내학대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 51-79.
- 신경희. (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

- 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자. (1999). 부부간의 열등감, 성역할태도와 스트레스가 아내강간 경험 및 피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117-151.
- 심선진. (2004). 국제결혼과 여성폭력-국제결혼한 필리핀여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워크샵 자료집, 39-50.
- 안영희. (1998). 기혼남녀의 부부폭력 경험과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선화. (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 35-45.
- 양순미, 유영주. (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75-91.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 (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6), 127-149.
- 여성가족부.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연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1999).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형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한울: 321-349.
- 이경희.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규삼. (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연. (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 센터.
- 이선미. (1995). 부모 자녀의 성역할태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실. (1989). 도시부인의 부부갈등 제 요인과 생활 불만족의 정도.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 장영애. (2002). 결혼초기 부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79-93.
- 이영희. (1993). 가정 내 폭력의 요인에 관한 연구 -남편의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만. (199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라남도. (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자료집.
- 전만길. (2005). 외국인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 (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2000). 한국 농촌여성의 심리적 복지수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93-118.
- 최규련. (2001). 한국농촌 여성의 문제경험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16.
- 최금해.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자료집.
- 통계청. (2009). 2008년 혼인통계.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이주여성인권센터 3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16.
- 홍기혜. (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원표. (1993). 도시 맞벌이 부부의 갈등관리-부산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raham, M. (2000). *Speaking the unspeakable: Marital violence among South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Ang, M. A. (1995). The Filipino settlement experience in Australia. *Asian Migrant*, 8(2), 42-46.
- Ataca, B., & Berry, W. J.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ienvenu,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19, 26-31.

- Brecklin, L. R. (2002). The role of perpetrator alcohol use in the injury outcomes of intimate assaul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3), 185-197.
- Corvo, K., & Carpenter, E. H. (2000). Effects of parental substance abuse on current levels of domestic violence: A possible elaboration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es. *Journal of Families Violence, 15*(2), 123-135.
- Dasgupta, O. S. (2000). Charting the South Asi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Distress and the Homeless, 9*(3), 173-185.
- Follingstad, D. R., & Dehart, D. D. (2000). Defining psychological abuse of husbands toward wives: Contexts, behaviors, and typolog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9), 891-920.
- Hass, G. A., Dutton, M., & Orloff, E. L. (2000). Lifetime pervalence of violence against Latina immigrant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7*, 93-113.
- Holtzworth, M. A., Smutzler, N., & Bates, L. (1997). A brief review of the research on husband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3*(2), 285-307.
- Hotaling, G. T., & Sugarman, D. (1990). Prevention of wife assault. In R. T. Ammerman and M. Hersen (Eds.), *Treatment of family violence: A sourcebook*. 385-405. New York, John Wiley & Sons.
- Imamura, E. A. (1998). The loss that has no name: Social womanhood of foreign wives. *Gender & Society, 12*(2), 291-307.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coping and appraisal*. New York, Springer.
- Leonard, K. E., & Quigley, B. M. (1999). Drinking and marital aggression in newlyweds: An event-based analysis of drinking and the occurrence of husband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 537-545.
- Mason, K. O., & Bumpass, L. L. (1975). U.S. women's sex-role ide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0*(5), 1212-1219.
- Mckenry, P. C., Julian, T. W., & Gavazzi, S. M. (1995). Toward a biopsychosocial model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2), 307-320.
- Noller, P., & Fitzpatrick, M. A. (1990). Marital communication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832-843.
- Osmond, M., & Martin, P. Y. (1975). Sex and sexism : A comparison of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4), 744-758.
- Pearson, J. C. (1989). *Communication in the Family: Seeking satisfaction in changing times*. New York: Harper & Row.
- Piper, N. (1997).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race' and 'gender' perspectives. *Gender, Place and Culture, 4*(3), 321-338.
- Shin, H. (1995). Violence and intimacy: Risk markers and predictors of wife abuse among Korean immigr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mith, A., & Kaminskas, G. (1992). Female Filipino migration to Australia: An overview. *Asian Migrant, 5*(3), 72-81.
- Stith, S. M., Rosen, K. H., Middleton, K. A., Busch, A. L., Lundeberg, K., & Carlton, R. P. (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604-654.
- Straus, M. A., & Gelles, R. J. (1986).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465-479.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K.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ew York: Anchor Press.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Whitfield, C. L., Anda, R. F., & Felitti, V. J. (2003). Violent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ults: Assessment in a larg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2), 166-185.

접 수 일 : 2009. 07. 31.
수정완료일 : 2009. 10. 24.
게재확정일 : 2009. 11. 04.